

한 영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학대학원생의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예절다도학 전공
박 영 숙

신학대학원생의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 연구

한 영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예절다도학 전공
박 영 숙

인 준 서

박영숙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에서는 신학대학원생들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재하는 자아존중감과 생활 속에서 대인관계의 측면이 반영되는 예절수행의 정도를 살펴본 후 목회자 역할준비도와 이들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준비의 과정에서 자아존중감 및 예절수행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궁극적으로 목회자 역할준비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첫째 신학대학원생의 자아존중감의 경향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둘째 신학대학원생의 예절수행의 경향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및 예절수행의 하위영역별 연관성, 셋째 신학대학원생의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경향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하위항목별 연관성, 넷째 신학대학원생의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토대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목회자 역할준비도를 파악하는 설문지를 구성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위치한 서울, 경기, 경북 지역의 각각 1개교에 재학 중인 신학대학원생들을 임의로 표집 하였다.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304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학대학원생들의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경향은 5점 만점에 평균 4.04점으로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성별, 연령, 학년, 신앙경력, 거주지, 결혼여부, 예절의 중요성 인식 여부에 따라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목회자가 되는 준비과정으로서의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 여부에 따라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2. 예절수행의 전반적인 경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83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공공예절(3.97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문예절(3.86점), 인사예절(3.85점), 복장예절(3.82점), 전화예절(3.81점), 식사예절(3.76점), 대화예절(3.7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학대학원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예절수행은 거주지와 예절의 중요성 인식 여부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경기와 경북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현대사회에서 예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예절수행을 나타냈다. 예절수행의 하위영역들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는 모든 하위영역들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3.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7점 만점에 평균 4.79점을 나타냈다. 문항별로는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아는 목회자의 역할(5.41점), 대인관계가 원만한 목회자의 역할(5.17점), 속죄의 체험을 가진 목회자의 역할(5.11점), 봉사과 섬김의 본이 되는 목회자의 역할(5.00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의 역할(4.82점),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목회자의 역할(4.70점), 소명의식이 투철한 목회자의 역할(4.53

점), 성경에 입각한 교육철학을 가진 목회자의 역할(4.51점), 성경본문에 충실한 목회자의 역할(4.47점), 성경을 이해하고 시대에 맞게 성경해석을 하는 목회자의 역할(4.20점)의 순으로 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른 목회자 역할준비도는 전체적으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일부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 기혼인 집단,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집단, 남학생 집단에서 역할준비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하위항목별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에 있어서는 모든 하위항목들 간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4. 신학대학원생들의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과 예절수행, 자아존중감과 목회자 역할준비도, 예절수행과 목회자 역할준비도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면 향후 신학대학원생들의 목회자 역할준비도를 높기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올바른 예절수행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목회자 역할준비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생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점검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대해 보다 높은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자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목회자 역할준비 증진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예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천적 예절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향후 신학대학원생들은 한국교회의 이미지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존재이다.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교육을 통해 건전한 자기관리와 원만한 대인관계의 조화를 기반으로 하는 목회자의 역할준비가 부각된다면 이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자아존중감	3
2. 예절수행	6
3. 목회자 역할준비도	8
4. 선행연구	16
III. 연구방법	24
1. 연구문제	24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25
3. 조사도구	25
4. 자료 분석	29
5. 연구의 제한점	29

IV. 연구결과 및 해석	3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30
2. 신학대학원생의 자아존중감	32
3. 신학대학원생의 예절수행	36
4. 신학대학원생의 목회자 역할준비도	48
5.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	56
V. 결론 및 제언	62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III-1> 질문지의 문항 구성	26
<표 III-2> 척도의 신뢰도	28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
<표 IV-2>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경향	33
<표 IV-3> 배경변인별 자아존중감의 차이	35
<표 IV-4> 예절수행의 전반적인 경향	37
<표 IV-5> 배경변인별 예절수행의 차이	43
<표 IV-6> 예절수행의 하위영역별 연관성	46
<표 IV-7>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전반적인 경향	49
<표 IV-8> 배경변인별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차이	51
<표 IV-9>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하위항목별 연관성	55
<표 IV-10> 자아존중감과 예절수행의 관계	57
<표 IV-11> 자아존중감과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	57
<표 IV-12> 예절수행과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	60

I. 서론

한국교회는 짧은 선교역사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성장이 있었지만 이는 숫자적이고 외형적인 면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내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한국교회의 장래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런 문제의 핵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바로 목회자들이다. 바른 목회자야말로 한국교회의 참모습을 찾으려는 개혁과 쇄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라고 본다.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목회자상에 대해 정희국(1991)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동시에 윤리적인 인간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꾸준히 학문을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의 발전뿐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목회자의 생활은 청렴해야 하고, 투철한 소명의식 속에서 받은 달란트를 최대로 활용하여 헌신하는데 가치를 찾아야 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를 보면 바람직한 목회자로서의 역할 속에는 신앙적인 측면 이외에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관점에

서 인격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모습과 더불어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상적인 목회자상에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문윤순, 1985; 이의복, 1989; 정희국, 1991; 송점섭, 1995; 박명성, 2003; 이성혁, 2009)에서 목회자의 인성적 특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졌은 점에서도 반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선행연구들에서는 목회자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다 실증적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신학대학원생들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재하는 자아존중감과 생활 속에서 대인관계의 측면이 반영되는 예절수행을 살펴보고 목회자 역할준비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면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목회자상에 보다 부합될 수 있는 신학대학원생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연구(김명소·이상실, 2004; 송창국, 2005)가 일부 진행된 것에 반해 목회자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신학대학원생들의 자아존중감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신학대학원생들의 대인관계 측면을 반영하는 예절수행의 정도를 살펴본 연구도 전무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학대학원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예절수행의 정도를 살펴본 후 목회자 역할준비도와 이들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준비를 증진해나갈 수 있는 교육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

Rosenberg(1981)는 자아존중감을 자기존경의 정도,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즉 자기 자신을 지향하는 태도로 자아존중감이야말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적어도 남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신념이며 남과 더불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앞으로도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였다. Kaplan(1984)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한편 긍정적인 감정을 최대화하려는 동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와 타인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에 대한 자신의 수용과 존경의 정도이다(고려옥, 2005).

박혜원(2002)도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로 개념을 언급하면서 이는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며 생활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하였다. 즉 인생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에 대한 권리와 행복한 삶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안순자, 1997; 김명소 · 이상실, 2004; 김광웅, 2007).

첫째, 행복하고 안정적이며 애정이 있다. 이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각자의 능력을 잘 인식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교우만족도가 높고 인간관계에서 공격이나 회피보다는 협력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

둘째, 에너지가 많으며 순발력이 있어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대해 보다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삶에 대한 자신의 주도권을 즐기며, 미래는 과거의 사건이나 환경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

셋째,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 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다. 나아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과 행동은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창조적인 사고를 한다. 이들은 수동적인 적응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추구하는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 또한 이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환경을 탐색하며 모험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동기, 태도, 가치관, 정서, 인지과정, 성격, 사고 등의 모든 심리적 행동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로 개인의 생활과정에서 부단히 경험하는 선택과 결정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조대봉, 1991). 황기남(2003)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감이나 긍정적인 평가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 반응과 그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스스로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현대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결국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사회적 특성에 대해 스스로가 가지는 긍정적 평가로 자신을 능력 있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겠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그리고 자아실현의 면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되기를 바란다.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은 무엇보다 자신의 중요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진정으로 느끼게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은 타인에 대한 존중, 모든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자아존중감은 신학대학원생이 앞으로 그가 속한 교단에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어떠한 목회활동을 해나갈 것인가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목회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와 자부심을 느낀다면 이는 사역을 감당 할 때 사명감과 기쁨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김명소 · 이상실, 2004; 송창국, 2005).

2. 예절수행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를 동양에서는 예절, 서양에서는 에티켓이나 매너로 표현한다. 근본적으로 동양의 예절과 서양의 매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와 그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시작되는 규범적 행동양식을 의미한다(엄문자·류미현, 2000). 이 같은 예절은 인격형성의 요건이면서 인간의 공동체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예절은 개개인들이 모여 함께하는 조화로운 삶 속에서 서로 지키고 행해야 할 사회적인 약속으로서의 생활규범이다(최배영, 2002).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계약적 생활규범(김득중, 2005)인 예절은 사회인으로서 자기관리와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는데 절실히 요구된다. 인간이 태어나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은 시대를 초월한다. 대내적으로 수기(修己)하여 정성된 마음가짐을 지니고 대외적으로 치인(治人)하여 공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몸가짐 즉 웃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면서 주변사람들과 조화롭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예절의 본질이며 목적이 된다(이길표, 1997).

예절수행은 실제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예절을 실천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이정우·김연화, 2001). 존경, 정성, 사랑, 감사, 연대감과 같은 내면적으로 분명하게 동인(動因)된 예절의 의식이 타인을 향한 격에 맞는 외면적 행동방식으로 이어질 때 참다운 예절의 수행이 실천될 수 있다(이정우·김경아, 2002).

예절수행의 습관은 성인기에 있어 중요한 인성적 자원이 된다(장혜숙, 2007). 오오히라(1981)의 예절의 발달단계에 의하면 만 18세 이후에는

예절에 대한 생각이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내면화되고 가치의 갈등을 극복하는 전환기를 거쳐 생각과의 일치로 보게 되는 양면적 성숙기에 이르게 된다(장철선, 2007). 따라서 성인기의 예절수행은 한 개인이 참되고 성숙한 인성을 소유하고 대인관계를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예절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이며 삶의 질적인 향상과 사회정화 면에서 사회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김희경, 1999).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해 놓은 생활방식인 예절을 실천해야 한다(이행숙, 1998). 올바른 예절수행은 스스로 자기 마음속을 선명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을 정리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율성을 회복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절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임혜경·정지영, 1997). 또한 예절은 공동체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행동양식이므로 예절의 근본정신을 일깨우면서 시민 사회, 국제사회에서 올바르게 자신을 적응,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기에 있는 신학대학원생들은 장차 가정과 교회, 사회,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목회자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존재이다. 따라서 목회자로서의 준비를 위한 학문적 발전을 지향하는 심도 있는 교육과 함께 학생 자신의 마음가짐과 몸가짐, 언어와 행동 그리고 생활의 모든 면을 가다듬어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영위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이정우·김연화, 1996). 이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예절을 습득하게 하여 바른 자기관리와 원만한 대인관계의 자질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을 보면 예절수행은 자신의 내면에 예절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자신은 물론 타인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여 성숙한 예절로써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대내적 수기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대외적 치인으로서 대인과의 관계에 원만함을 공유할 수 있는 자질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신학대원생들에게도 요구되는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3. 목회자 역할준비도

목회라는 말은 영혼과 치유라는 두 어휘가 하나로 결합된 술어로 되어 있다. 목회사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사역으로 영혼의 치유는 물론 육체적 치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분별하는 일을 돕는 자로서 인식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그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목회는 권위주의적이고 계급주의적인 형태에서 섬김의 지도력의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 참여하는 자로서의 역할은 교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의 깊게 응답하도록 돕는 데 있다(송점섭, 1995).

좀 더 구체적으로 목회자의 역할을 구분하면 목양적, 대화적, 조직적이라는 형용사적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이는 목회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목양자로서의 역할은 영적인 건강의 치료,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는 지탱과 안내의 기능을 말한다. 대화자로서의 역할은 교육, 설교, 예배 등의 활동을 통해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관계 및 인간과의 수평관계를 함께 내포하고 있

다(이기춘, 1979). 조직가로서의 역할은 교회라는 공동생활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과 물질의 질서 문제에 대해 행정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조동진, 1965). 목회는 계획해야 하며, 조직력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목회사역을 할 때 상승효과가 생기므로 조직론을 사용해야 한다(이성희, 2001).

이 같은 목회자의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 준비의 정도를 목회자 역할준비도라고 할 때 이상적인 목회자상에 부합되는 역할 준비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를 들 수 있다(정희국, 1991).

1) 시대를 선도하는 목회자

교회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고, 목회자는 그 교회의 선두에 서야 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사명과 책임을 이행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생활이 요청된다. 성경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성경을 연구하여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게 되므로 새로운 성경해석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또한 성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참뜻을 잘 알아야 한다. 번역 성경만으로는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치려면 최근에 발견된 성경 해석을 알아야 한다. 성경이 과거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었고 동시에 성서를 토대로 한 설교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탐구해야 한다(이종성, 1981).

성경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 성서를 바탕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나 신학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 속에서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고 올바른 신학관을 갖는다 해도 이 사회를 알지 못하고 세계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면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는 이상으로 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각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역사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 전반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고 탐구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만 신앙의 토대 위에서 이 시대의 삶의 의미와 시대의 흐름,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을 바르게 해석하여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에 전달하고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 늘 깨어서 사회의 선각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준비사항이다(정희국, 1991).

2) 소명의식이 투철한 목회자

소명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사역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목회자는 부르심을 받은 교인들 가운데 다시 골라서 따로 뽑아 세우신 사람이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대답을 명확히 할 수 없다면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황의영, 1980).

목회자로서의 소명은 믿음 공동체의 확증이 필수적이다.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별된 사명으로 생각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자신의 주된 과업으로 여겨야 한다. 즉 목회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김영균, 1992).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의지나 원함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하나님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예지 및 예정에 기초하여 생겨난 것이다. 소명의식을 가진 목회자는 목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중요한 직분임을 알아야 한다(이성호, 1978).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자는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하며 목회자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소명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써야 한다.

3) 속죄의 체험을 가진 목회자

목회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속죄 체험을 가져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므로 자신의 구원을 기정사실로 치부하고 더 걱정하지 않는 설교자는 파멸에 직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J. Richard Spann, 1969).

목회자가 증인이라면 목회자에게는 이를 증거 할 사실을 갖고 있어야 한다. 목회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 자신이 구원받은 경험이 늘 새로워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거듭된 경험을 계속 회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심화하는 것이다(정희국, 1991).

4)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목회자

사람이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목회자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박윤선, 1976).

목회자는 절제력이 강하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신체적, 심리

적 또는 영적으로 바른 위치에 서야 한다. 절제한다는 말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세상 것에 도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서의 중심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일이든 탐식이든 간에 과도함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김득룡, 1992).

5) 가정을 다스릴 줄 아는 목회자

목회자가 자신의 가정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목회자는 건전한 가정생활을 토대로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혼인을 하여 가정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귀한 일이다(황의영, 1980).

목회자는 복음사역의 동반자로 부부 상호간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모습은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자기의 가정을 화목하게 다스리고,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목회자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좋은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서는 결코 교회를 이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가정부터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다. 잘 다스린다는 말은 지도하다 또는 잘못을 고쳐준다는 깨우침의 의미가 있다. 가정을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지나치게 엄한 어떤 명령이나 방침이 아닌 다분히 교육적이어야 함을 말한다(송점섭, 1995).

6) 대인관계가 원만한 목회자

목회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므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만하지 못하면 직무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드럽고 진실 되며 좋은 인상을 지녀야 한다(박윤선, 1976).

목회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도 인간이기에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참고 억제해야 한다(김진오, 2001).

또한 목회자는 폭력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록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다툼만은 피해야 한다. 다투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이다(정회국, 1991).

오히려 목회자는 관용을 베풀 줄을 알아야 한다. 간혹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하나의 관계로서의 인간이다. 인간은 타자가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적 인간이라고 볼 때 목회자 역시 타자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맹용길, 1977). 그래서 목회자의 생활은 무엇보다 먼저 겸손을 배워야 하며(Thomas A Kempis, 1985), 대인관계를 원만히 영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현대 목회자의 상은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목회자의 위치는 어떤 특정 계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도이며, 성도들 가운데 한 지도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이상근, 1965).

7) 성경본문에 충실한 목회자

목회자에게 있어 설교는 목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설교가 바로 선포될 때에는 교회가 든든히 섰지만 설교가 바로 선포되지 않았을 때는 교회가 병들었고 동시에 사회가 병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한 해석이 없이 설교가 행하여질 때는 교회가 병들게 되었다는 것을 예증한다. 한국

의 목회자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험이나 예화집을 참고로 설교를 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설교자는 항상 성경 본문에 충실해야만 한다(정성구, 1980).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가장 큰 설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승을 더 귀히 보거나 사람의 말과 제도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게 될 때 교회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설교자는 항상 성경에 충실해야 하고, 설교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해진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설교자가 되어야 하며 성서를 부지런히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야 한다(이양호, 1996).

8) 목회철학이 있는 목회자

목회자는 바로 교육가이다. 성경의 상식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반드시 성경에 입각한 교육 철학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영혼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현실은 보수이든 진보이든 간에 어느 한쪽만을 택하기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생의 전 분야에 역사한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예배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목회자들이 교육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목회자 자신의 삶의 이중성도 문제가 되거니와 메시지의 이중성도 문제가 된다. 또한 목회자는 세상의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영혼의 지도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정희국, 1991).

9)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

목회자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자비의 사랑을 포함하는 사회적 비전 안에서 회중을 형성시키며 목회적 돌봄을 하도록 부름을 받는다(박명성, 2003).

목회자는 교회 밖 즉 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한다(조요셉, 1969). 그 사회의 번영과 발전과 안전을 위한 후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목회자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학교와 병원, 공중위생시설 등의 건립, 경찰의 수련과 교통안전 등에 대해 격려를 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민간단체의 사람들과 친교 하는 자리에 참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와 같은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교인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교류의 관계를 갖게 되면 복음을 인도할 만한 친밀한 우의를 갖는 길을 마련하거나 혹은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정희국, 1991). 목회자는 또한 자기 주변에 있는 불행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들에 대해 목회자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하고 교인들을 격려해서 그와 같은 일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종성(2001)은 목회자는 미래에 희망을 두고 오늘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10) 봉사와 섬김의 본이 되는 목회자

봉사란 수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적 봉사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다방면에 걸친 봉사적 개념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정인찬, 1981).

봉사는 섬김의 자세를 말한다. 섬김의 모습을 보여 주셨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도 역시 섬김이 있어야 한다(진상민, 2004). 목회자는 섬김의 자세를 익혀야 한다. 교회는 사회와 이웃에게 헌신과 봉사를 베풀어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김영균, 1992).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은 생애 전체에 이르러 나타난 말과 행동이 일치된 봉사였으며, 그 자신마저 아낌없이 내주었던 우주적 섬김의 완성이었다(박명성, 2003). 바로 이 섬김이 한국교회가 바라는 목회자상이다.

이상을 보면 오늘날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요구되는 목회자로서의 역할 준비에는 확고한 소명의식과 목회철학을 바탕으로 성경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행하는 목양적인 측면 이외에도 속죄의 체험을 갖고 자신의 삶과 가정을 잘 관리해나가는 모습과 더불어 시대를 선도하여 지역사회에 관심과 봉사 그리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영위할 수 있는 대화적 자질과 조직적 능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선행연구

신학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를 관련지어 연구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연구대상을 달리한 관련연구들을 포함시켜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살펴보고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련 변인

(1) 성별

이정우와 김연화(2001)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남녀의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은진(2005)과 김광웅(2007)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일부 연구(박성연 등, 2001; 이완정, 2003)에서 보고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의 예절행동을 분석한 이행숙(199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예절행동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우와 김연화(2001)는 예절수행의 영역을 대화예절, 인사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가정의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식사예절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식사예절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엄문자와 류미현(2000)에서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생활예절수행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목회자 역할준비도를 파악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평신도들이 바라는 목회자상을 연구한 이의복(1989)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을 목회자로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목회자의 성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응답이 다음으로 나타나 앞으로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 사회적 수용이 변화,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였다.

(2) 연령

성인남녀의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집단 간 차이는 이정우와 김연화(2001)의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목회자의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송창국(2005)의 연구에서도 연령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예절수행에 관련하여 이정우와 김연화(2001)의 연구에서는 생활예절수행이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오환일과 김연화(2003)의 연구에서는 가족예절, 가정의례, 식사예절, 대화예절, 인사예절 가운데 가정의례 영역에서만 연령이 높을수록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목회자 역할준비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이상적인 목회자의 연령을 조사한 문윤순(1985)에 따르면 40대가 약 60%를 나타냈으며, 이의복(1989)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약 80%가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를 목회자의 적정 연령으로 응답하였다.

(3) 지역

지역을 독립변인으로 한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분석은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4) 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원은진(2005)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학년별 비즈니스 매

너에 인식에서도 학년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엄문자와 류미현(2000)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예절수행을 연구한 장혜숙(2007)의 분석에 의하면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음식예절 중 공중예절에서만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차이를 밝힌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5) 결혼여부

결혼여부에 따른 예절수행의 차이는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정규범에 대한 가치의식을 밝힌 이길표(1994)의 연구를 통해 일부나마 유추해 볼 수 있다. 분석결과 기혼인 기성세대는 미혼인 대학생들에 비해 식생활, 의생활, 언어와 인사, 몸가짐에 관한 가정규범의 수용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연구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료되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6) 예절의 중요성 인식

원은진(2005)의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매너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오환일과 김연화(2003)의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의 생활예절수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생활 속에서 예절이 중요하다고 높게 인지할수록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원은진(2005)의 연구에서도 매너의 중요성을

높게 갖는 집단에서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인식이 높음이 보고되었다.

예절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목회자 역할준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목회자의 자격 요건을 조사한 문운순(1985)의 분석에 따르면 투철한 사명감, 확실한 신앙체험과 같은 신앙적 준비와 더불어 성격이 원만하고 생각이 건전해야 하는 점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유사하게 이의복(1989)의 연구에서도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에 진실한 인격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7)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

이정우와 김연화(2001)의 연구에서는 예절교육 여부에 따른 성인남녀의 자아존중감을 분석하였으나 예절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원은진(2005)의 연구에서는 매너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원은진(2005)은 매너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집단에서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청소년의 예절수행을 연구한 장혜숙(200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지닌 집단에서 예절수행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목회자 역할준비도를 밝힌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

먼저 자아존중감과 예절수행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이정우와 김명나(1999)의 논문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예절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에게서 예절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주변의 생활윤리나 공중도덕을 실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견해를 밝혔다. 지금수 등(2002)과 장혜숙(2007)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이 예절수행을 높게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진 청소년일수록 생활 속에서 예절을 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논의하였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동기화되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의 가장 바람직한 생활규범인 예절을 보다 잘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어 예절수행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경아, 2003). 또한 예절수행을 잘 하면 개인 스스로를 편안하게 하고 자신감을 얻게 되어 일에 집중하게 된다고 하였다(김혜영·최인려, 2008). 성인남녀의 생활예절수행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이정우와 김연화(2001)의 연구를 살펴보면 예절수행을 잘하는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화예절, 인사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을 잘 수행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현저히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과 예절수행은 정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를 살펴보면 송정섭(1995)은 목회자로서 자기의 고집대로만 하려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워 타인의 선한 뜻과 건설적인 생각을 무시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목회자의 생활은 자신을 가르치고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로 자신의 능력과 개인적 잠재력을 성취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결여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되어진다(정경숙, 2002). 김명소·이상실(2004)은 목회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는 가운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목회활동의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목회자의 상황적 및 정서적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인 가운데 자아존중감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밝혔다.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압박감과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켜줌으로써 사람들과 만날 때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심리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가 원활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조현아·조희숙, 2006). 또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송창국(2005)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목회자의 직무만족도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들은 신학대학원생들의 자아존중감과 목회자 역할준비도 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점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예절수행과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를 목회자의 인성적 특성에 대해 논의한 문운순(1985)의 연구에 의거하여 정리해보기로 한다. 문운순의 견해에 따르면 목회자는 참다운 인격을 소유한 사람 중의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인격은 하루아침에 발전되지는 않는다. 목회자로서 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끊을 수 없는 많은 실제적인 일들이 계속되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는 인성 개발이 요청되며,

목회수행에 있어서 겸허한 목회자의 인성이 강조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2007)에는 목회자로서의 요건 가운데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김혜영·최인려(2008)는 예절수행을 통해 신뢰감을 높여 상대방에게 협력자임을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어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오늘날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신학대학원생은 학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원만한 인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계약적 규범인 예절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절수행과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신학대학원생들의 자아존중감은 어떠한가?

1-1)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1-2)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신학대학원생들의 예절수행은 어떠한가?

2-1) 예절수행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2) 배경변인에 따른 예절수행의 차이는 어떠한가?

2-3) 예절수행의 하위영역별 연관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신학대학원생들의 목회자 역할준비도는 어떠한가?

3-1)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3-2) 배경변인에 따른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3-3)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하위항목별 연관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신학대학원생들의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4-1) 자아존중감과 예절수행의 관계는 어떠한가?

4-2) 자아존중감과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4-3) 예절수행과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위치한 서울, 경기, 경북 지역의 각각 1개교에 재학 중인 신학대학원생들을 임의로 표집 하였다.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10부를 회수하였으며, 부실 기재한 6부를 제외하고 총 304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로 그 내용은 조사대상 신학대학원생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목회자 역할준비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III-1, 표 III-2 참조).

<표 III-1> 질문지의 문항 구성

구분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년, 신앙경력, 현 거주지, 결혼여부, 현대사회에서 예절의 중요성 인식, 목회자 준비로서의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	1-8	8
자아존중감		1-10	10
예절수행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공예절 방문예절 전화예절 복장예절 식사예절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5 5 5 5 5 5 5
목회자 역할준비도	시대를 선도하는 목회자 소명의식이 투철한 목회자 속죄의 체험을 가진 목회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목회자 가정을 다스릴 줄 하는 목회자 대인관계가 원만한 목회자 성경본문에 충실한 목회자 목회철학이 있는 목회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 봉사와 섬김의 분이 되는 목회자	1 2 3 4 5 6 7 8 9 10	10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신학대학원생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년, 신앙경력, 헌 거주지, 결혼여부, 현대사회에서 예절의 중요성 인식, 목회자 준비로서의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자아존중감

신학대학원생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광림(2005), 이수란(2007)의 연구에서 적용된 척도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에 기초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hronbach's α 는 .83이었다.

3) 예절수행

예절수행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원은진(2004), 장혜숙(2007)의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여 7개 하위영역 총 35개 문항(대화예절 5문항, 인사예절 5문항, 공공예절 5문항, 방문예절 5문항, 전화예절 5문항, 복장예절 5문항, 식사례절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예절수행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 전체의 Chronbach's α 는 .90이며, 하위영역별로는 대화예절 .66, 인사예절 .69, 공공예절 .68, 방문예절 .74, 전화예절 .68, 복장예절 .74, 식사례절 .65였다.

<표 III-2> 척도의 신뢰도

구분	내용	신뢰도	
자아존중감		.83	
예절수행	대화예절	.66	.90
	인사예절	.69	
	공공예절	.68	
	방문예절	.74	
	전화예절	.68	
	복장예절	.74	
	식사예절	.65	
목회자 역할준비도		.92	

4) 목회자 역할준비도

신학대학원생의 목회자 역할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윤순(1985), 정회국(1991), 김영균(1992), 이성혁(2009)의 고찰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가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는 총 10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목회자 역할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hronbach's α 는 .92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5.0을 이용하여 자료를 통계처리하고 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 신학대학원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로 살펴보았다.

2) 신학대학원생의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적용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3) 신학대학원생의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목회자 역할준비도 간의 관련성은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5.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 경북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신학대학원생들을 임의로 표집 하여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한계를 지니므로 신학대학원생 전체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표준화된 척도라고는 볼 수 없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조사대상 신학대학원생들의 성별은 남학생이 203명으로 66.8%, 여학생이 101명으로 33.2%로 남학생이 2배 정도 많았다. 이는 신학대학원내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별 분포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 분포는 20대가 138명으로 45.4%, 30대가 102명으로 33.6%, 40대 이상이 64명으로 21%로 나타나 20대가 다소 많고 다음으로 30대, 40대의 순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165명으로 54.3%, 2학년이 86명으로 28.3%, 3학년이 53명으로 17.4%를 나타냈다.

신앙경력은 15년 이상 된 학생들이 273명으로 89.8%로 나타났으며, 14년 이하는 31명으로 10.2%였다. 신학대학원의 특성 상 약 90% 정도의 학생들이 오랜 신앙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대상자의 현 거주지는 서울이 128명 42.1%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93명 30.6%, 경기 83명 27.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179명 58.9%였으며, 기혼이 125명 41.1%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 중 30대와 40대의 비율이 54.6%로 나타난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분	N(%)	
		N	%
성별	남성	203	66.8
	여성	101	33.2
연령	20대	138	45.4
	30대	102	33.6
	40대 이상	64	21.0
학년	1학년	165	54.3
	2학년	86	28.3
	3학년	53	17.4
신앙경력	14년 이하	31	10.2
	15년 이상	273	89.8
거주지	서울	128	42.1
	경기	83	27.3
	경북	93	30.6
결혼여부	미혼	179	58.9
	기혼	125	41.1
현대사회에서 예절의 중요성 인식	중요	290	95.4
	보통	14	4.6
목회자 준비로서의 예절교육 필요성 인식	필요	253	83.2
	보통	51	16.8
전체		304	100.0

한편 신학대학원들이 갖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예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290명(95.4%)이 중요하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또한 목회자 준비과정으로서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253명(83.2%)으로 보통이다(16.8%)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신학대학원생의 자아존중감

연구문제 1) 신학대학원생들의 자아존중감은 어떠한가?

1-1)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1-2)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1)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경향

신학대학원생들의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와 같다.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의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04점으로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송창국(2005)의 연구에서 평균 3.00점(4점 만점)이 나타난 결과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원은진(2005)의 연구결과에 제시된 평균 3.16점(5점 만점)에 비해서도 높은 점수였다.

<표 IV-2>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경향

문항	M	SD
1.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60	.67
2. 나는 나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4.27	.77
3.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4.22	.90
4. 나는 맡은 일은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다.	3.75	.83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3.57	1.08
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4.14	.74
7.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4.02	.79
8. 나는 내 자신을 존중한다.	4.15	.83
9.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	4.05	.98
10. 나는 가끔이라도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3.63	1.02
전체	4.04	.55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4.60점), 나는 나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4.27점),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4.22점),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4.14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4.05점),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4.02점), 나는 맡은 일은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다(3.75점), 나는 가끔이라도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3.63점),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3.5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리는 수용과 존경의 정도(고려옥, 2005)라고 볼 때 신학대학원생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문항의 자아존중감의 측면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대해 보다 높은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자신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신학대학원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전반적으로 신학대학원생의 자아존중감은 성별, 연령, 학년, 신앙경력, 거주지, 결혼여부, 예절의 중요성 인식 여부에 따라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인남녀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들(이정우·김연화, 2001; 원은진, 2005; 김광웅, 2007)에서 성별, 연령,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반면 목회자 준비과정으로서 예절교육의

<표 IV-3> 배경변인별 자아존중감의 차이

구분		M
성별	남성	4.05
	여성	4.01
	t	.44
연령	20대	4.03
	30대	4.03
	40대이상	4.08
	F	.28
학년	1학년	4.08
	2학년	3.99
	3학년	4.00
	F	.83
신앙경력	14년 이하	4.07
	15년 이상	4.03
	t	.15
거주지	서울	4.08
	경기	4.03
	경상	3.99
	F	.76
결혼여부	미혼	4.03
	기혼	4.05
	t	.11
예절의 중요성 인식	중요하다	4.04
	보통이다	3.93
	t	.59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	필요하다	4.07
	보통이다	3.90
	t	3.83*

* p<.05

필요성 인식에 따라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p < .05$). 이는 원은진(2005), 장혜숙(2007)의 연구에서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의 하나로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신학대학원생들에게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잘 인식하는 긍정적인 태도(안순자, 1997; 김명소·이상실, 2004; 김광웅, 2007)를 갖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3. 신학대학원생의 예절수행

연구문제 2) 신학대학원생들의 예절수행은 어떠한가?

2-1) 예절수행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2) 배경변인에 따른 예절수행의 차이는 어떠한가?

2-3) 예절수행의 하위영역별 연관성은 어떠한가?

1) 예절수행의 전반적인 경향

신학대학원생들의 예절수행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4>과 같다. 전체적인 예절수행의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83점으로 보통 수준에서 다소 상회하였다. 하위영역별로는 공공예절(3.97점)이 가장 높았고,

<표 IV-4> 예절수행의 전반적인 경향

영역	문항	M	SD
대 화 예 절 (M=3.70)	1. 나는 대화를 나눌 때 간결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 한다.	3.52	.79
	2. 나는 말하는 속도나 목소리에 유의하면서 대화를 한다.	3.52	.84
	3. 나는 대화 시 상대방에게 맞는 정확한 호칭을 사용한다.	3.86	.69
	4. 나는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경우 골고루 눈길을 보내면서 이야기한다.	3.93	.75
	5. 나는 대화 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3.69	.80
인 사 예 절 (M=3.85)	6. 나는 길에서 친구를 만나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한다.	3.71	.80
	7. 나는 인사를 할 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다.	3.99	.71
	8. 나는 새해 인사인 세배를 바르게 행할 수 있다.	3.77	.77
	9. 나는 축하와 위로의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할 수 있다.	3.86	.68
	10. 나는 상대방의 연령이나 지위에 맞는 인사를 행할 수 있다.	3.93	.64
공 공 예 절 (M=3.97)	11. 나는 공공장소에서는 휴대폰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놓는다.	4.36	.72
	12. 나는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친구와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한다.	4.14	.83
	13. 나는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줄을 선다.	4.15	.74
	14. 나는 아무리 바빠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3.30	.99
	15. 공공장소에서 출입문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나는 항상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준다.	3.92	.73
방 문 예 절	16. 나는 타인을 방문할 때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하고 방문을 한다.	4.06	.76
	17. 나는 타인을 방문할 때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초대받지 않은 사람을 임의로 동행하지 않는다.	3.78	.81
	18. 나는 타인을 방문할 때 폐가 될 정도로 오래 머물지 않는다.	4.02	.67

(M)=3.86	19. 방문 약속을 취소해야 하면 나는 하루나 이틀 전에 전화를 한다.	3.84	.75
	20. 초대를 받은 곳을 방문할 때 나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간다.	3.61	.82
전화예절 (M=3.81)	21. 나는 전화를 걸 때 나의 신분과 성명을 먼저 밝힌다.	4.04	.83
	22. 나는 잘못 걸려온 전화라도 언제나 친절하게 응대한다.	3.72	.83
	23. 나는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의 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건다.	3.88	.83
	24. 나는 부재중인 사람을 찾는 전화의 용건을 정확히 메모하여 전달할 수 있다.	3.75	.80
	25. 나는 통화가 끝나면 상대방이 수화기를 내려 놓은 것을 확인한 후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3.66	.87
복장예절 (M=3.82)	26. 나는 나에게 어울리는 정장을 선택해서 바르게 입을 수 있다.	3.83	.78
	27. 나는 문상을 갈 때 적합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4.19	.66
	28. 나는 모임이 있을 때 모임의 목적에 맞는 복장을 한다.	3.94	.72
	29. 나는 정기적으로 구두를 닦고 구두의 굽을 손질해서 신는다.	3.22	1.03
	30. 나는 어른들을 뵈 때는 짧은 반바지나 민소매는 입지 않는다.	3.90	.93
식사예절 (M=3.76)	31. 나는 어른과 함께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 먹기 시작한다.	4.15	.78
	32. 나는 식사 시 고기 뼈, 생선 가지 등을 한 곳에 가지런히 모아 식탁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04	.77
	33. 나는 식사 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를 쑤시지 않는다.	4.20	.80
	34. 나는 양식을 먹을 때 코스별로 나이프와 포크를 제대로 골라 사용할 수 있다.	3.45	.98
	35. 나는 차의 종류별 특징에 맞게 손님을 대접할 수 있다.	2.95	1.03
전체		3.83	.38

다음으로 방문예절(3.86점), 인사예절(3.85점), 복장예절(3.82점), 전화예절(3.81점), 식사예절(3.76점), 대화예절(3.7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행수준을 보인 식사예절과 대화예절은 수행정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됨을 반영한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대화예절에 있어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경우 골고루 눈길을 보내며 이야기한다(3.93점)와 대화 시 상대방에게 정확한 호칭을 사용한다(3.86점)는 비교적 수행이 높게 나타났으나 대화 시 간결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한다(3.52점)와 말하는 속도와 목소리에 유의하면서 대화한다(3.52)는 측면에서는 수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보면 앞으로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생이 간결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과 더불어 상황에 맞게 말하는 속도와 목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실습위주의 대화예절 교육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인사예절의 경우는 인사를 할 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다(3.99점)와 상대방의 연령이나 지위에 맞는 인사를 한다(3.93점)는 수행이 비교적 잘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길에서 친구를 만나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한다(3.71)와 새해인사인 세배를 바르게 행할 수 있다(3.77점)는 수행이 낮게 나타났다. 이로 보아 목회자가 되는 준비과정 중에 있는 신학대학원들에게 자신이 먼저 인사를 행하고자 하는 노력의 자세를 강조하고, 새해 웃어른들에 대한 공경을 표하는 한국의 인사예절인 배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예절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끄거나 진동으로 한다(4.36점)와 공공장소에서 줄서기와 교통시설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삼간

다(4.14점)는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바빠도 무단 횡단 하지 않는다(3.30점)와 공공장소에서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준다(3.92점)는 수행이 낮게 나타났다. 이를 보면 무단횡단과 같이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가는 의식적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주지하도록 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친절과 배려를 표현하는 행동에 대한 예절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방문예절에서는 타인을 방문할 때 미리 약속을 하고 방문한다(4.06점), 방문 시 폐가 되도록 오래 머물지 않는다(4.02점)는 수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대를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필요한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간다(3.61점)와 타인을 방문할 때 친한 사람이라도 임의로 동행하지 않는다(3.78점)는 수행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방문의 목적에 적합한 선물 선택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상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방문예절의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화예절에서는 전화를 걸 때 자신의 신분과 성명을 먼저 밝힌다(4.04점)는 예절수행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통화가 끝나면 상대방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것을 확인한 후 수화기를 내려놓는다(3.66점), 잘못 걸려온 전화라도 언제나 친절하게 응대한다(3.72점), 부재중인 사람을 찾는 전화의 용건을 정확히 메모하며 전달할 수 있다(3.75점)는 점 등은 상대적으로 수행이 낮게 나타났다. 오늘날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으로 전화와 같은 통신매체를 바르게 사용하는 예절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예절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실천을 연습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교인들과의 교제 및 교회의 제반 행정을 담당하게

될 신학대학원생들의 전화예절에 관한 수행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복장예절에서는 문상을 갈 때 적합한 복장을 입을 수 있다(4.19점)와 모임의 목적에 맞는 복장을 한다(3.94점)는 비교적 수행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기적으로 구두를 닦고 구두의 굽을 손질해서 신는다(3.22점)는 상대적으로 수행이 낮게 나타났다. 신학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의복 못지않게 구두 역시 복장예절 요소의 하나로 자기를 관리하는 측면이 됨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식사예절의 경우 식사 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를 쭈시지 않는다(4.20점),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 먹기 시작한다(4.15점), 나는 식사 시 고기 뼈, 생선 가지 등을 한 곳에 가지런히 모아 식탁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4.05점)는 수행이 높게 나타났으나 차의 종류별 특징에 맞게 손님을 대접할 수 있다(2.95점)와 양식을 먹을 때 코스별로 나이프와 포크를 골라 사용할 수 있다(3.45점)는 수행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식 테이블매너가 비교적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인 것에 비해 양식이나 티 테이블매너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앞으로 목회자로서 교회 내외의 사람들과 더불어 한식 외에도 양식 테이블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상담이나 심방을 하는 경우 다양한 차를 대접하고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국가별 음식에 따른 테이블매너 관련 식사예절과 차 생활 예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예절수행의 차이

신학대학원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예절수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학대학원생들의 배경변인 중 거주지와 예절의 중요성 인식 여부에 따라 예절수행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거주지가 경기와 경북이 집단이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났으며($p < .01$), 현대사회에서 예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났다($P < .05$).

다음으로 예절수행의 하위영역들에서의 변인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인사예절($p < .05$), 복장예절($p < .05$), 방문예절($P < .05$)과 식사예절($p < .05$)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집단이 방문예절, 복장예절, 식사예절에서 수행정도가 높았던 반면 남학생은 인사예절에서 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정우와 김연화(2001)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식사예절 수행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부 맥락을 같이한다.

연령별로는 모든 예절수행의 하위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생활예절수행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한 이정우와 김연화(2001)의 연구결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식사예절, 대화예절, 인사예절, 가족예절 등에서는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 오환일과 김연화(2003)의 견해와는 일부 일치한다.

신앙경력별로는 모든 예절수행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학년별로는 방문예절($p < .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어 2학년과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5> 배경변인별 예절수행의 차이

구분		대화 예절	인사 예절	공공 예절	방문 예절
성별	남자	3.72	3.89	3.97	3.82
	여자	3.68	3.78	3.98	3.95
	t	.27	3.89*	.01	3.75*
연령	20대	3.66	3.84	3.92	3.84
	30대	3.73	3.85	3.98	3.83
	40대 이상	3.77	3.88	4.07	3.96
	F	1.36	.17	1.62	1.25
학년	1학년	3.69	3.86	3.92	3.77 B
	2학년	3.73	3.88	4.07	4.00 A
	3학년	3.69	3.79	3.99	3.91 AB
	F	.26	.63	2.28	5.78**
신앙경력	14년 이하	3.81	3.70	4.01	3.82
	15년 이상	3.69	3.87	3.97	3.87
	t	1.41	3.37	.14	.22
거주지	서울	3.62 B	3.83	3.85 B	3.73 B
	경기	3.82 A	3.95	4.13 A	4.00 A
	경북	3.72 AB	3.80	3.99 AB	3.92 A
	F	4.29*	2.26	7.39**	7.91***
결혼여부	미혼	3.68	3.82	3.95	3.80
	기혼	3.75	3.89	4.01	3.96
	t	1.40	1.54	.83	6.93**
예절의 중요성 인식	중요하다	3.71	3.86	3.99	3.87
	보통이다	3.54	3.69	3.70	3.76
	t	1.51	1.78	3.86*	.57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	필요하다	3.72	3.87	3.99	3.87
	보통이다	3.64	3.78	3.89	3.82
	t	.91	1.40	1.62	.32

*p<.05, **p<.01

구분		전화 예절	복장 예절	식사 예절	전체
성별	남자	3.82	3.77	3.71	3.81
	여자	3.79	3.92	3.87	3.85
	t	.15	4.20*	5.60*	.68
연령	20대	3.79	3.77	3.71	3.79
	30대	3.82	3.82	3.74	3.82
	40대 이상	3.83	3.90	3.90	3.90
	F	.14	1.09	2.48	1.86
학년	1학년	3.81	3.76	3.71	3.79
	2학년	3.83	3.88	3.86	3.89
	3학년	3.77	3.90	3.75	3.83
	F	.23	1.81	2.07	2.21
신앙경력	14년 이하	3.75	3.79	3.72	3.80
	15년 이상	3.82	3.82	3.76	3.83
	t	.45	.50	.20	.17
거주지	서울	3.76	3.70 B	3.65 B	3.73 B
	경기	3.85	3.89 A	3.84 A	3.93 A
	경북	3.85	3.90 A	3.84 A	3.86 A
	F	.82	4.06*	4.58*	7.33**
결혼여부	미혼	3.81	3.79	3.71	3.79
	기혼	3.81	3.86	3.83	3.87
	t	.02	1.17	3.23	3.08
예절의 중요성 인식	중요하다	3.83	3.83	3.77	3.84
	보통이다	3.43	3.59	3.59	3.61
	t	7.30**	2.28	1.38	4.68*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	필요하다	3.83	3.85	3.78	3.84
	보통이다	3.71	3.65	3.64	3.73
	t	2.10	4.68*	2.59	3.56

*p<.05, **p<.01

거주지에 따라서는 대화예절(p<.05), 공공예절(p<.01), 방문예절(P<.001), 복장예절(p<.05), 식사례절(p<.05)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여 경기와 경북 지역의 신학대학원생들이 서울 지역보다 이들 영역에서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별로는 방문예절(p<.01)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여 기혼이 미혼보다 방문예절 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예절의 중요성 인식 여부에 따라서는 공공예절(p<.01)과 전화예절(p<.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현대사회에서 예절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공공예절과 전화예절의 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속에서 예절이 중요하다고 높게 인지하는 집단에서 생활예절 수행이 높다고 한 오환일과 김연화(2003), 원은진(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목회자 준비로서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 여부에 따라서는 복장예절(P<.05)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여 예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복장예절 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가진 집단에서 예절수행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한 이길표(1997), 원은진(2005), 장혜숙(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신학대학원생들의 예절수행은 보통 수준에서 다소 상회하고는 있으나 이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미혼의 남학생들을 위한 예절교육의 기회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부 하위영역에서 2학년과 3학년에 비해 1학년의 예절수행이 낮게 나타남을 볼 때 학년별로 예절교육의 이론과 실습을 심화하는 것이 예절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3) 예절수행의 하위영역별 연관성

예절수행의 하위영역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표 IV-6 참조) 전반적으로 모든 하위영역들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 < .0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화예절은 복장예절·방문예절·전화예절·공공예절과, 인사예절은 복장예절·전화예절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공공예절은 방문예절·전화예절·복장예절과, 방문예절은 전화예절·복장예절·식사예절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화예절은 복장예절·식사예절과, 복장예절은 식사예절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IV-6> 예절수행의 하위영역별 연관성

	대화 예절	인사 예절	공공 예절	방문 예절	전화 예절	복장 예절	식사 예절
대화 예절	1						
인사 예절	.38***	1					
공공 예절	.42***	.30***	1				
방문 예절	.44***	.27***	.51***	1			
전화 예절	.42***	.36***	.47***	.53***	1		
복장 예절	.45***	.44***	.40***	.44***	.50***	1	
식사 예절	.35***	.25***	.35***	.42***	.45***	.56***	1

*** $p < .001$

이상에서 살펴본 신학대학원생들의 예절수행의 전반적인 특징을 종합하면 신학대학원생들은 공공예절>방문예절>인사예절>복장예절>전화예절>식사예절>대화예절의 순으로 예절수행의 원활함을 보이고 있어 특별히 대화예절에 대한 수행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와 김경아(2002), 장혜숙(2007)의 연구에서 대화예절에 대한 수행정도가 다른 예절수행의 영역에 비해 낮았던 결과를 비롯하여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길표(1997), 이정우와 김연화(2001), 오환일과 김연화(2003)의 연구에서도 역시 대화예절의 수행정도가 낮게 나타난 점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를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대화예절의 수행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던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선행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때 청소년 세대로부터 청년기와 장년인 기성세대까지 대화예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각성 노력과 수행정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신학대학원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예절수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들의 예절수행 증진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미혼의 학생들을 위한 예절교육의 기회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 하위 영역에서 2학년과 3학년에 비해 1학년에서 예절수행이 낮게 나타남을 볼 때 학년별로 예절교육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때 예절수행의 하위 영역들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의 예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는 집단일수록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남을 볼 때 생활 속에서 예절을 실천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일깨우는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판단된다.

이정우와 김경아(2002)의 연구에서도 외면적으로 보이는 예절수행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예절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인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예절은 정신적인 면의 인식이 선행될 때 실천적 측면의 예절수행도 자연스럽게 유도되어 참다운 예절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4. 신학대학원생의 목회자 역할준비도

연구문제 3) 신학대학원생들의 목회자 역할준비도는 어떠한가?

3-1)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3-2) 배경변인에 따른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3-3)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하위항목별 연관성은 어떠한가?

1)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전반적인 경향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표 IV-7 참조) 전체적으로 7점 만점에 평균 4.79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위항목별로는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아는 목회자의 역할(5.41점), 대인관계가 원만한 목회자의 역할(5.17점), 속죄의 체험을 가진 목회자의 역할(5.11점), 봉사과 섬김의 본이 되는 목회자의 역할(5.00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의 역할(4.82점),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목회자의 역할(4.70점), 소명의식이 투철한 목회자의 역할(4.53점), 성경에 입각한 교육철학을 가진 목회자의 역할(4.51점), 성경본문에 충실한 목회자의 역

<표 IV-7>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전반적인 경향

항목	M	SD
1. 소명의식이 투철한 목회자의 역할	4.53	1.38
2. 성경을 이해하고 시대에 맞게 성경해석을 하는 목회자의 역할	4.20	1.28
3. 성경본문에 충실한 목회자의 역할	4.47	1.24
4. 성경에 입각한 교육철학을 가진 목회자의 역할	4.51	1.28
5. 속죄의 체험을 가진 목회자의 역할	5.11	1.25
6.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목회자의 역할	4.70	1.25
7.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아는 목회자의 역할	5.41	1.20
8. 대인관계가 원만한 목회자의 역할	5.17	1.16
9.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의 역할	4.82	1.23
10. 봉사와 섬김의 본이 되는 목회자의 역할	5.00	1.20
전체	4.79	.94

할(4.47점), 성경을 이해하고 시대에 맞게 성경해석을 하는 목회자의 역할(4.20점)의 순으로 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2) 배경변인에 따른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차이

신학대학원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8>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일부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목회자의 역할($p < .05$)과 봉사과 섬김의 본이 되는 목회자의 역할($p < .05$)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즉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목회자의 역할은 남학생 집단에서, 봉사과 섬김의 본이 되는 목회자의 역할은 여학생집단에서 준비도가 높게 반영되었다.

이의복(1989)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남성을 목회자로서 인식하는 비율이 높지만 목회자의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예견케 한다. 이광순(2005)은 여성 목회자는 남성 목회자에 비해 무척 낮은 지위와 차별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 신학대학원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았으므로 전문성과 실력의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남성목회자에 비하여 여성 목회자의 비율이 증가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목회자 역할준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보다 종합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IV-8> 배경변인별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차이

구분		소명 의식	성경 해석	성경 본문	교육 철학	속죄 체험
성별	남자	4.58	4.24	4.46	4.53	5.09
	여자	4.42	4.13	4.48	4.48	5.15
	t	.98	.52	.01	.13	.15
연령	20대	4.51	4.13	4.47	4.53	5.01
	30대	4.53	4.24	4.37	4.51	5.23
	40대 이상	4.55	4.31	4.61	4.48	5.14
	F	.01	.49	.71	.03	.92
학년	1학년	4.55	4.18	4.45	4.52	5.16
	2학년	4.51	4.28	4.55	4.58	5.05
	3학년	4.49	4.15	4.38	4.40	5.04
	F	.04	.22	.32	.34	.35
신앙경력	14년 이하	4.26	4.19	4.55	4.42	4.90
	15년 이상	4.56	4.21	4.46	4.52	5.13
	t	1.31	.00	.15	.18	.93
거주지	서울	4.63	4.24	4.49	4.50	5.16
	경기	4.46	4.07	4.37	4.48	5.22
	경북	4.44	4.27	4.52	4.56	4.94
	F	.66	.62	.33	.90	1.33
결혼여부	미혼	4.50	4.08	4.46	4.44	5.06
	기혼	4.57	4.38	4.48	4.62	5.18
	t	.19	3.88*	.02	1.36	.62
예절의 중요성 인식	중요하다	4.55	4.22	4.45	4.52	5.36
	보통이다	4.07	3.93	4.79	4.36	5.10
	t	1.61	.68	.97	.22	.58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	필요하다	4.57	4.21	4.46	4.54	5.12
	보통이다	4.29	4.20	4.51	4.39	5.06
	t	1.75	.00	.07	.54	.10

*p<.05, **p<.01

구분		자기 관리	건강 가정	대인 관계	지역 사회	봉사 섬김	전체
성별	남자	4.61	5.41	5.23	4.90	5.10	4.82
	여자	4.90	5.41	5.05	4.65	4.76	4.74
	t	3.78*	.00	1.57	2.77	5.50*	.42
연령	20대	4.54	5.41	5.07	4.72	4.86	4.73
	30대	4.76	5.38	5.31	4.90	5.11	4.83
	40대이상	4.95	5.45	5.14	4.89	5.08	4.86
	F	2.55	.07	1.29	.75	1.44	.61
학년	1학년	4.70	5.56 A	5.24	4.76	4.97	4.81
	2학년	4.87	5.24 B	5.12	4.93	5.01	4.81
	3학년	4.43	5.21 B	5.02	4.83	5.02	4.70
	F	2.02	2.97*	.86	.56	.52	.33
신앙경력	14년이하	4.65	5.32	5.03	5.10	5.10	4.75
	15년이상	4.71	5.42	5.18	4.79	4.98	4.80
	t	.08	.19	.47	1.77	.27	.61
거주지	서울	4.59	5.59	5.17	4.80	4.88	4.81
	경기	4.82	5.22	5.14	4.80	5.17	4.77
	경북	4.75	5.34	5.18	4.86	4.99	4.78
	F	.92	2.62	.03	.08	1.50	.03
결혼여부	미혼	4.61	5.44	5.10	4.70	4.88	4.73
	기혼	4.83	5.38	5.26	4.99	5.14	4.88
	t	2.23	.18	1.46	4.25*	3.50	2.10
예절의 중요성 인식	중요하다	4.73	5.42	5.19	4.83	5.00	4.80
	보통이다	4.21	5.14	4.71	4.50	4.71	4.58
	t	2.25	.73	2.25	.99	.77	.75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	필요하다	4.74	5.44	5.22	4.91	5.06	4.83
	보통이다	4.53	5.25	4.92	4.39	4.65	4.62
	t	1.19	1.04	2.77	7.57**	5.05*	2.05

*p<.05, **p<.01

연령, 신앙경력, 거주지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학년에 따라서는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아는 목회자의 역할($p < .05$)에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 1학년 집단이 2학년과 3학년 집단에 비해 높은 준비도를 보였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시대에 맞게 성경해석을 하는 목회자의 역할($p < .05$),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의 역할($p < .05$)에 집단 간 차이가 있어 기혼이 미혼보다 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예절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예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학생들에서 비교적 목회자 역할준비도가 높게 반영되었다. 목회자로서의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여부에 따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의 역할($p < .01$), 봉사과 섬김의 본이 되는 목회자의 역할($p < .05$)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집단에서 이들 항목의 역할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박명성(2003)의 연구에서 목회자로서의 자격 요건 중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겸손한 사랑의 실천자로서 목회자의 인성이 강조되는 측면과 일치한다.

이상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종합해서 볼 때 성별 차이보다는 남녀 모두 목회자로서의 종합적인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미혼의 학생들이 일부 하위영역에서 목회자 역할준비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예절의 중요성과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학생들이 속죄의 체험, 건강한 가정, 대인관계에 대한 역할준비도가 비교적 높음을 볼 때 예절의 중요성 인식 교육이 목회자로서의 자기관리와 원만한 인간관계에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하위항목별 연관성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하위항목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표 IV-9) 전반적으로 모든 하위항목들 간에 정적 상관관계($p < .001$)가 나타났다.

소명의식이 높은 신학대학원생들에게서 성경해석, 성경본문, 교육철학, 속죄체험, 자기관리에 관련하여 목회자로서의 역할준비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경해석을 잘 하는 신학대학원생들은 성경본문, 교육철학, 자기관리, 속죄체험에 관련하여 목회자 역할준비도가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성경본문에 충실한 신학대학원생들의 경우 교육철학, 자기관리, 속죄체험 등에서 목회자 역할준비도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교육철학을 가진 신학대학원생들은 자기관리와 속죄체험에 관련하여 목회자 역할준비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속죄체험을 가진 신학대학원생들이 자기관리와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아는 목회자 역할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관리를 잘하는 신학대학원생들의 경우 봉사와 섬김, 건강한 가정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 목회자로서의 역할준비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아는 신학대학원생들은 대인관계와 봉사와 섬김의 목회자 역할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가 원만한 신학대학원생들은 봉사와 섬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 역할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신학대학원생들은 봉사와 섬김의 본이 되는 목회자 역할준비도에 있어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IV-9>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하위항목별 연관성

	소명 의식	성경 해석	성경 본문	교육 철학	속죄 체험	자기 관리	건강 가정	대인 관계	지역 사회	봉사 섬김
소명 의식	1									
성경 해석	.64 ***	1								
성경 본문	.63 ***	.81 ***	1							
교육 철학	.63 ***	.75 ***	.77 ***	1						
속죄 체험	.50 ***	.50 ***	.54 ***	.57 ***	1					
자기 관리	.52 ***	.58 ***	.58 ***	.60 ***	.54 ***	1				
건강 가정	.42 ***	.34 ***	.43 ***	.43 ***	.54 ***	.52 ***	1			
대인 관계	.37 ***	.37 ***	.40 ***	.44 ***	.43 ***	.52 ***	.63 ***	1		
지역 사회	.41 ***	.45 ***	.44 ***	.43 ***	.34 ***	.42 ***	.45 ***	.53 ***	1	
봉사 섬김	.49 ***	.47 ***	.48 ***	.49 ***	.48 ***	.55 ***	.54 ***	.60 ***	.71 ***	1

***p<.001

이상에서 보면 확고한 소명의식과 목회철학을 바탕으로 성경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신학대학원생들은 대내적으로 속죄의 체험을 갖고 자신의 삶과 가정을 잘 관리해나가야 하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대외적으로는 시대를 선도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봉사 그리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원만히 영위해나갈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준비 노력의 자세를 갖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5.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

연구문제 5) 신학대학원생들의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5-1) 자아존중감과 예절수행의 관계는 어떠한가?

5-2) 자아존중감과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5-3) 예절수행과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신학대학원생들의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아존중감과 예절수행의 관계

신학대학원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예절수행의 관계(IV-10)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정적 상관($p < .001$)을 나타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예절수

<표 IV-10> 자아존중감과 예절수행의 관계

	대화 예절	인사 예절	공공 예절	방문 예절	전화 예절	복장 예절	식사 예절	전체
자아 존중감	.28 ***	.29 ***	.18 **	.19 **	.24 ***	.23 ***	.21 ***	.33 ***

p<.01, *p<.001

<표 IV-11> 자아존중감과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

	소명 의식	성경 해석	성경 본문	교육 철학	속죄 체험	자기 관리	건강 가정	대인 관계	지역 사회	봉사 섬김	전체
자아 존중감	.24 ***	.18 **	.23 ***	.26 ***	.29 ***	.32 ***	.33 ***	.33 ***	.26 ***	.26 ***	.36 ***

p<.01, *p<.001

행의 실천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인사예절($p<.001$), 대화예절($p<.001$), 전화예절($p<.001$), 복장예절($p<.001$), 식사예절($p<.001$), 방문예절($p<.01$), 공공예절($p<.01$) 순으로 예절수행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자아존중감과 예절수행 간의 정적 상관은 이들의 관련성을 밝힌 지금수 등(2002)과 장혜숙(2007)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가질수록 생활 속에서 예절을 잘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개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동기화되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의 가장 바람직한 생활규범인 예절을 보다 잘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어 예절수행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경아, 2003).

2) 자아존중감과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

다음으로 신학대학원생들의 자아존중감과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IV-11)를 살펴보면 모든 하위영역별로 정적인 상관($p<.001$)을 나타내고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목회자 역할준비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p<.001$), 건강한 가정($p<.001$), 자기관리($p<.001$), 속죄체험($p<.001$)에 관련하여 목회자로서의 역할준비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자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질, 가정에 대한 자질, 대인관계에 대한 자질을 갖추어야 함을 말하는 송점섭(1995)과 박명성(2003)의 견해와 일치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신학대학원생들은 하나님께 대한 속죄의 체험을 갖고 스스로를 가다듬는 자

기관리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노력하며 가정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 준비에 충실히 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앙과 자아존중감이 관계가 있음을 논의한 노광수(1997)의 연구, 자기에 대한 존중과 수용이 목회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김명소·이상실(2004)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목회자의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도 및 결혼만족도 간의 정적 상관을 밝힌 송창국(2005)의 연구와도 일부 연관된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가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목회자의 역할준비 및 대인관계가 원만한 목회자로서의 역할준비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갖는 점에 주목해서 볼 때 인간은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로 자아존중감이 결여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정경숙(2002)의 지적을 상기하게 된다.

3) 예절수행과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

신학대학원생들의 예절수행과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예절수행과 목회자 역할준비도는 정적인 상관을 보여 예절수행이 높을수록 목회자 역할준비도가 높게 반영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예절수행의 하위영역들 중에 식사에절($p<.001$), 인사예절($p<.001$), 전화예절($p<.001$), 복장예절($p<.01$), 대화예절($p<.001$), 방문예절($p<.01$), 공공예절($p<.05$)의 순으로 목회자 역할준비도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박명성(2003)은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과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더불어 개인과 가정에 대하여, 공동체 안과 공동체 밖에서의 도덕적

<표 IV-12> 예절수행과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계

	소명 의식	성경 해석	성경 본문	교육 철학	속죄 체험	자기 관리	건강 가정	대인 관계	지역 사회	봉사 섬김	전 체
대 화 예 절	.13 *	.12 *	.13 *	.14 *	.14 *	.26 ***	.07	.20 ***	.11	.22 ***	.20 ***
인 사 예 절	.14 *	.07	.10	.20 ***	.19 **	.20 ***	.25 ***	.41 ***	.18 **	.31 ***	.27 ***
공 공 예 절	.06	.01	.08	.05	.13 *	.18 **	.10	.12 *	.08	.22 ***	.13 *
방 문 예 절	.15 *	.13 *	.16 **	.18 **	.24 ***	.20 **	.19 *	.13 *	.04	.14 *	.20 **
전 화 예 절	.16 **	.13 *	.14 *	.18 **	.21 ***	.20 ***	.13 *	.22 ***	.13 *	.19 **	.23 ***
복 장 예 절	.14 *	.15 **	.11 *	.17 **	.19 **	.29 ***	.16 **	.23 ***	.09	.18 **	.23 **
식 사 예 절	.19 **	.17 **	.18 **	.19 **	.26 ***	.29 ***	.21 ***	.25 ***	.14 *	.23 ***	.28 ***
전 체	.20 **	.16 **	.18 **	.22 ***	.27 ***	.33 ***	.21 ***	.31 ***	.15 **	.30 ***	.31 ***

*p<.05, **p<.01, ***p<.001

과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어생활, 가정생활, 대인관계 등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예절수행을 잘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예절수행의 하위영역들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예절수행은 대내적으로 정성된 마음가짐을 지니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경과 사랑의 몸가짐으로 표현(이길표, 1997)하는 인성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결국 신학대학원생들의 예절수행은 참되고 성숙한 인성을 소유한 목회자로서 장차 가정과 교회, 사회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이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본 자질과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목회자로서의 역할준비의 일환으로서 예절수행을 위한 실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다. 이에 목회자로서의 준비를 위한 학문적 발전을 지향하는 심도 있는 교육과 함께 학생 자신의 마음가짐과 몸가짐, 언어와 행동 그리고 생활의 모든 면을 가다듬어 스스로 자기 마음속을 선명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을 정리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율성을 회복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영위하는 예절수행의 실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신학대학원의 과정은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시기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의 실천을 기반으로 올바르게 성숙한 목회자의 역할준비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신학대학원생들의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의 측면이 반영되는 예절수행 그리고 목회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적 준비로서의 역할준비도 간 상호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가 지향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역할준비 증진을 목적으로 신학대학원생들을 위한 교육의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신학대학원생들의 목회자 역할준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방향에 관련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7점 만점에 평균 4.79점으로 중간 수준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위항목별로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아는 목회자의 역할, 대인관계가 원만한 목회자의 역할, 속죄의 체험을 가진 목회자의 역할, 봉사과 섬김의 본이 되는 목회자의 역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준비도는 평균 점수를 상회하였던 반면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목회자의 역할, 소명의식이 투철한 목회자의 역할, 성경에 입각한 교육철학을 가진 목회자의 역할, 성경본문에 충실한 목회자의 역할, 성경을 이해하고 시대에 맞게 성경해석을 하는 목회자의 역할준비

도는 평균점수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을 암시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반영되는 이들 항목들에 관련된 역할준비도를 증진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한 교육철학을 갖고 성경을 이해하며 시대에 맞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훈련과 능력 향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배경변인별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남성을 목회자로서 인식하는 비율이 높지만 목회자의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견해도 늘고 있고, 여성 목회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도 비추어볼 때 목회자 역할준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남녀 모두 목회자로서의 종합적인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역시 필요하다. 또한 미혼의 학생들이 일부 하위영역에서 목회자 역할준비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목회자 역할준비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생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점검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역할준비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수용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학대학원생들의 자아존중감은 일반 대학생의 자아존중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신학대학원생들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기수용은 목회자의 역할인 교회의 리더로서의 책임감

과 교인들을 돌보는 목양을 위한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학대학원생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자아존중감의 측면인 자기의 능력과 성취에 대해 보다 높은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자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 강화를 위한 자기 수용과 존경의 정도를 높이는 교육이 요구된다.

셋째, 신학대학원생들의 목회자 역할준비를 돕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예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천적 예절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예절의 중요성과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학생들이 속죄의 체험, 건강한 가정, 대인관계에 관련하여 목회자 역할준비도가 비교적 높음을 볼 때 예절의 중요성 인식 교육이 목회자로서의 자기관리와 인간관계에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같은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생들을 위한 예절교육은 이론에 그치지 않는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져야 예절수행 정도를 높이고 목회자 역할준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예절수행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꾸준하고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신학대학원 내에 예절교육을 위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실습실을 마련하여 정규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교회와 사회에서 수행이 필요한 예절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실천을 도모할 수 있다. 신학대학원생들은 한국교회의 이미지의 설정에도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존재이므로 신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교육을 통해 향후 목회자의 모습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각된다면 이는 교회의 성장을 위하는 방안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신학대학원생들의 예절수행은 보통 수준에서 다소 상회하고는 있

으나 이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목회자로서의 역할준비에 임하고 있는 신학대학원생들을 위한 예절교육의 내용으로는 각 하위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행수준을 보인 측면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대화예절의 경우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연습과 더불어 상황에 맞게 말하는 속도와 목소리를 조절하는 교육이 요청된다. 인사예절 영역에 있어서는 자신이 먼저 인사를 행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새해 웃어른들에 대한 공경을 표하는 한국의 인사예절인 배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공공예절 측면에서는 무단횡단과 같이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가는 의식적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주지하도록 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친절과 배려를 표현하는 행동에 대한 예절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문예절 영역에서는 방문의 목적에 적합한 선물 선택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상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방문예절의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오늘날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으로 전화와 같은 통신매체를 바르게 사용하는 예절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예절을 교육함으로써 앞으로 교인들과의 교제 및 교회의 제반 행정을 담당하게 될 신학대학원생들의 전화예절 수행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편 복장예절교육에 있어서는 의복 못지않게 구두 역시 복장예절 요소의 하나로 자기를 관리하는 측면이 됨을 주지시켜야 한다. 교회 내외의 사람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목회자로서 오늘날과 같이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되는 시점이라면 더욱이 다양한 국가별 음식과

차 생활에 관련된 식사예절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결과 예절수행의 하위영역들 중 식사예절은 목회자 역할준비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성경적으로 식탁교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학대학원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예절수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들의 예절수행 증진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미혼의 남학생들을 위한 예절교육의 기회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부 하위영역에서 2학년과 3학년에 비해 1학년의 예절수행이 낮게 나타남을 볼 때 학년별로 예절교육의 이론과 실습을 심화하는 것이 예절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넷째, 신학대학원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예절수행, 자아존중감과 목회자 역할준비도, 예절수행과 목회자 역할준비도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나는 본 연구의 결과에 의거해볼 때 향후 신학대학원생들의 목회자 역할준비도를 높기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올바른 예절수행을 함께 증진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준비해나가는 신학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한 건전한 자기관리와 원만한 대인관계의 조화를 확고한 기반으로 다지는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본 연구에서는 신학대학원생의 목회자 역할준비도와 자아존중감 및 예절수행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신학대학원생의 목회자 역할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인에 대한 탐색, 목회자 역할준비 정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표준화된 척도 구성, 그리고 신학대학원생의 목회자 역할준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려옥(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아(2003). 청소년의 예절수행 세대전이 및 가정생활건강성-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림(2005). 칭찬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학생활적응,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2007). 자아존중감 및 자기수용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9(4), 983-999.
- 김광웅·방은령(1992). 아동기의 도덕적 사회화과정. 아동연구 7(1), 121-140.
- 김득룡(1992). 현대목회실천론 신강.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 김득중(2005). 실천예절개론. 서울: 교문사.
- 김명소·이상실(2004). 목회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탐색 및 삶의 질과의 관계 분석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2, 205-232.
- 김미원(1988). 고교생의 종교성과 자아개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균(1992).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자세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오(2001).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자질 개선방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 방희정 · 소유경 · 옥정 · 김은경(2006). 한국 남녀 대학생 집단에서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4), 437-458.
- 김혜영 · 최인려(2008). 비즈니스와 생활예절.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김홍규 · 허은주(2003). 대학생의 심리적 성숙 변인과 성태도와의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10(4), 403-422.
- 김희경(1999).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자 · 최배영(2004). 인간발달단계에 따른 다례교육모델 연구.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7(1), 1-16.
- 남궁은정 · 한주리 · 허경호(2008). 대학생의 갈등 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완벽주의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화 만족도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5(1), 357-380.
- 노광수(1997). 기독교청소년들과 비기독교청소년들과의 자아개념 비교.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2007). 헌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맹용길(1977). 기독교 윤리학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문운순(1985). 목회자의 인성적 특성에 관한 교인들의 태도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성(2003). 목회자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 이종미 · 임숙자(2001).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 · 식생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8), 1-18.
- 박운선(1976). 바울서신. 서울: 영음사.
- 박혜원(2002). 공감훈련이 여중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점섭(1995). 이상적인 목회자상과 영성개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창국(2005). 목회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순자(1997).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문자 · 류미현(2000).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지식, 태도와 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3(2), 101-111.
- 오환일 · 김연화(2003). 도시 기혼남성의 생활예절수행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1, 5-25.
- 원은진(2005). 대학생의 비즈니스 매너와 공감능력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나(1997). 인지행동적 집단상담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순(2005). 한국교회의 성장과 저성장. 서울: 미션아카데미.

- 이기춘(1979). 목회자를 위한 목회신학.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길표(1994). 가정규범에 관한 기성세대와 대학생 간의 가치의식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135-146.
- 이길표(1997). 규범서를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생활예절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125-137.
- 이상근(1965). 목사직의 새 자세. 복된 말씀. 서울: 복된말씀사.
- 이상실(2003). 목회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혁(2009). 돌봄사역을 통한 갈등회복과 신뢰공동체 만들기.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호(1978). 새성서대사전. 서울: 성지사.
- 이성희(2001). 밀레니엄 목회리포트. 서울: 규장문화사
- 이수란(2007). 한국 대학생의 자존감의 수반성: 영역별 수반성과 자기평가 사이의 불일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양호(1996). 칼빈에게서 배우는 차세대를 위한 목자상. 목회와 신학 87, 71-75.
- 이영애(1989). 고등학교 자연계 학생들의 탐구적 학습 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완정(2003).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와 기능 및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49-60.
- 이의복(1989). 평신도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목회자상에 대한 연구. 장로

- 회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김경아(2002).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와 가정생활건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2), 79-95.
- 이정우·김명나(1999). 어머니의 예절수행이 초등학생 자녀의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과학연구 14(1), 1-16.
- 이정우·김연화(1996). 대학의 생활예절교육 실제 및 수강효과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지 11(2), 3-24.
- 이정우·김연화(1998). 대학생의 '생활예절' 관심도 및 수강 후 태도·행동 변화에 대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61-173.
- 이정우·김연화(2001). 도시인의 생활예절수행이 가족적응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2), 69-85.
- 이종성(1981). 목회자 퇴화를 극복하는 계속교육. 월간목회 60.
- 이종성(2001). 조직신학대개.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 이태인(199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행숙(1998). 대학생의 예절의식과 예절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5(1), 173-196.
- 임혜경·정지영(1997). 대학생의 예절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4(1), 1-20.
- 장철선(2007). 대학생의 예절·다도교육 요구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숙(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성향 및 예절수행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2000). 인간발달-전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정경숙(2002). 여대생들의 미용과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구(1980). 실천신학개론.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 정영숙(1999). 부산여대생의 다도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차학회지
5(2), 41-49.
- 정인찬(1981). 성서대백과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정지영 · 주영애 · 안현숙(1996). 대학생의 예절교육에 대한 의식조사. 한
국여성교양학회지 3(1), 307-333.
- 정희국(1991). 한국 교회의 바람직한 목회자상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
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대봉(1991). 인간행동의 이해와 자아실현. 서울: 문음사.
- 조동진(1965). 목회자의 직능과 교리 행정. 교회와 신학.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출판부.
- 조요셉(1969). 복된 말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조현아 · 조희숙(2006). 성인들의 극복력, 생의 의미, 자존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건강심리학회 포스터발표 논문집, 258-259.
- 지금수 · 나지원 · 이진숙(2002). 청소년의 예절의식 및 예절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2), 135-147.
- 진상민(2004). 목회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배영(2002). 생활예절과 자기표현. 서울: 신광출판사.
- 함준호(1984). 평신도들이 원하는 목회자상의 조사연구.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웅선(1980). 예절의 교육. 인문과학 44, 215-242.

황기남(2003). 자기 성장 집단훈련이 자아존중감, 인간관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의영(1980). 목사학. 서울: 성광문화사.

J. Richard Spann(1969), 김재준 역. *The ministry* 목사학. 서울: 기독교서회.

Thomas A Kempis(1985), 박명곤 역.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ABSTRACT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Etiquette Implementation and Level of Readiness for Pastoral duties in Graduate school students of Ministry

Park, Young Sook

Major in Propriety and Tea Culture

Dep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how self-esteem can allow positive valuations for the graduate school students of ministry by a characteristic of a man and their accomplishments in etiquette implementation that reflects facets of their social lives, also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readiness for pastoral dut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how to set up the course of education for the promotion of the level of readiness

for pastoral duties in maturity-oriented Korean churche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are:

1. The levels of self-esteem and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according to factors of change in graduate school students of ministry.
2. The levels of etiquette implementation,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according to factors of chang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sub-categories of etiquette implementation in graduate school students of ministry.
3. The levels of readiness for pastoral duties,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according to factors of chang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sub-categories of the level of readiness for pastoral duties in graduate school students of ministry.
4. The mutual relativity between self-esteem, etiquette implementation and the level of readiness for pastoral duties in graduate school students of ministry.

The subjects of the study taken from the graduate school students of ministry handed out free option,. These theological seminaries opera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are located in Seoul, Gyeonggi-Do and

Gyeongsangbuk-Do. The survey method was 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After a preliminary survey, a total of 304 out 350 main survey questionnaires from September 12th until 20th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self-esteem levels of graduate school of ministry students averaged somewhat high 4.04 points on a 5 point scale. The results from this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self-esteem according to factors of change such as gender, age, grade, residence, marriage, etc. showed no difference. However, there was evidence to suggest that the group with higher self-esteem are aware if the need for etiquette implementation which shows higher self-esteem in the group.

Second, the etiquette implementation levels of graduate school students of ministry 3.83 points on a 5 point scale, with sub-categories of : Public etiquette at 3.97 points, Visiting etiquette at 3.86, Greeting etiquette at 3.85, Dress etiquette at 3.82, Phone etiquette at 3.81, Table etiquette at 3.76 and Conversation etiquette at 3.70 in numerical order.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aware of the need for etiquette implementation who consequently shows higher level of etiquette implementation.

Third, the level of readiness for pastoral duties averaged 4.79 points on a 7 point scale. Among the categories, pastoral dutie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 healthy family at 5.41 points, smooth social relationships at 5.17, experienced redemption at 5.11, services and worship at 5.00, attention to local community at 4.82, self-administration at 4.70, strong sence of calling by God at 4.53, educational philosophy based on the Bible at 4.51, faithfulness to the Bible text at 4.47, biblical exegesis of the Bible at 4.20 in numerical order.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married group, male student group and the group aware of the need for etiquette implementation who consequently show higher level of readiness for pastoral duties.

the results from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all categories of the level of readiness for pastoral duties show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ll categories.

Fourth, the results from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elf-esteem, etiquette implementation and the level of readiness for pastoral duties show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ll categories.

It shows that the efforts to improve positive self-esteem and all-round etiquette implementation in Graduate School students of Ministry are considered important motives for readiness for pastoral duties based on healthy thoughts and harmonious actions.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신학대학원생의 자아존중감, 예절수행 및 목회자 역할준비도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무기명으로 응답해 주시는 설문내용은 본 연구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되므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 전공
박영숙 드림

*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
- ② 여성 ()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학년은?

- ① 1학년 ()
- ② 2학년 ()
- ③ 3학년 ()

4. 귀하의 신앙경력은?

- ① 5-9년 ()
- ② 10-14년 ()
- ③ 15년 이상 ()

5. 귀하의 현 거주지는?

- ① 서울 ()
- ② 경기 ()
- ③ 경북 ()

6. 귀하의 결혼여부는?

- ① 미혼 ()
- ② 기혼 ()

7. 귀하는 현대사회에서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요하다 ()
- ② 보통이다 ()
- ③ 중요하지 않다 ()

8. 귀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의 하나로 예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
- ② 보통이다 ()
- ③ 필요하지 않다 ()

*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시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나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맡은 일은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8) 나는 내 자신을 존중한다.					
9) 나는 내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0) 나는 가끔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 역채점 문항: 3, 5, 9, 10

* 다음은 자신의 예절수행의 실천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화를 나눌 때 간결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 한다.					
2) 나는 말하는 속도나 목소리에 유의하면서 대화를 한다.					
3) 나는 대화 시 상대방에게 맞는 정확한 호칭을 사용한다.					
4) 나는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경우 골고루 눈길을 보내면서 이야기한다.					
5) 나는 대화 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6) 나는 길에서 친구를 만나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한다.					
7) 나는 인사를 할 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다.					
8) 나는 새해 인사인 세배를 바르게 행할 수 있다.					
9) 나는 축하와 위로의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할 수 있다.					
10) 나는 상대방의 연령이나 지위에 맞는 인사를 행할 수 있다.					
11) 나는 공공장소에서는 휴대폰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놓는다.					
12) 나는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친구와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 한다.					
13) 나는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줄을 선다.					
14) 나는 아무리 바빠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15) 공공장소에서 출입문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나는 항상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준다.					
16) 나는 타인을 방문할 때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하고 방문을 한다.					
17) 나는 타인을 방문할 때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초대받지 않은 사람을 임의로 동행하지 않는다.					

18) 나는 타인을 방문할 때 폐가 될 정도로 오래 머물지 않는다.					
19) 방문 약속을 취소해야 하면 나는 하루나 이틀 전에 전화를 한다.					
20) 초대를 받은 곳을 방문할 때 나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간다.					
21) 나는 전화를 걸 때 나의 신분과 성명을 먼저 밝힌다.					
22) 나는 잘못 걸려온 전화라도 언제나 친절하게 응대한다.					
23) 나는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의 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건다.					
24) 나는 부재중인 사람을 찾는 전화의 용건을 정확히 메모하여 전달할 수 있다.					
25) 나는 통화가 끝나면 상대방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것을 확인한 후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26) 나는 나에게 어울리는 정장을 선택해서 바르게 입을 수 있다.					
27) 나는 문상을 갈 때 적합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8) 나는 모임이 있을 때 모임의 목적에 맞는 복장을 한다.					
29) 나는 정기적으로 구두를 닦고 구두의 굽을 손질해서 신는다.					
30) 나는 어른들을 뵈는 때는 짧은 반바지나 민소매는 입지 않는다.					
31) 나는 어른과 함께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 먹기 시작한다.					
32) 나는 식사 시 고기 뼈, 생선 가시 등을 한 곳에 가지런히 모아 식탁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나는 식사 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를 쑤시지 않는다.					
34) 나는 양식을 먹을 때 코스별로 나이프와 포크를 제대로 골라 사용할 수 있다.					
35) 나는 차의 종류별 특징에 맞게 손님을 대접할 수 있다.					

* 다음은 자신의 목회자 역할준비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시오.

문항	
1) 소명의식이 투철한 목회자의 역할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1—2—3—4—5—6—7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2) 성경을 이해하고 시대에 맞게 성경해석을 하는 목회자의 역할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1—2—3—4—5—6—7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3) 성경본문에 충실한 목회자의 역할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1—2—3—4—5—6—7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4) 성경에 입각한 교육철학을 가진 목회자의 역할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1—2—3—4—5—6—7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5) 속죄의 체험을 가진 목회자의 역할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1—2—3—4—5—6—7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6)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목회자의 역할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1—2—3—4—5—6—7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7)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아는 목회자의 역할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1—2—3—4—5—6—7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8) 대인관계가 원만한 목회자의 역할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1—2—3—4—5—6—7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9)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목회자의 역할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1—2—3—4—5—6—7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10) 봉사와 섬김의 본이 되는 목회자의 역할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1—2—3—4—5—6—7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